

“발 씻는 자의 은혜”

요한복음 | John 13:11-17

말씀 FOCUS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써 겸손과 섬김의 본질을 보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를 위해 자신을 낮추는 것은 단순한 봉사가 아닌, 진정으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겸손이 우리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성품' 이 되어 서로의 발을 씻기는 '자세'로 섬기는 것입니다. 중요한 본질은 발을 씻기심 이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는 구원의 의미와 그 은혜를 상징합니다. 겸손과 섬김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참된 회개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더러워진 발을 씻어 주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아 회복과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가는 것, 이것이 주님의 제자 된 삶의 모습입니다.

말씀 UNDERSTAND

➤ 발을 씻는다는 것은

1. 제자들이 가져야 할 () - 겸손 (12-13, 빌 2:9-11, 34-35)

2. 제자들이 행해야 할 () - 섬김 (14-15, 마 16:24, 고후 2:15-16)

*** 발을 씻는 가장 중요한 본질 - ()

(딤후 3:5, 계 1:5)

말씀 APPLY & SHARE

- 나는 섬김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건 내 일이 아니야'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나요? 그 기준은 무엇이었나요?
- 매일의 신앙생활에서 겸손히 회개와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구하고 있나요? 이러한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발을 씻어주어야 할' 사람이 있다면 누구이며, 어떻게 그 사람을 겸손히 섬길 수 있을까요?